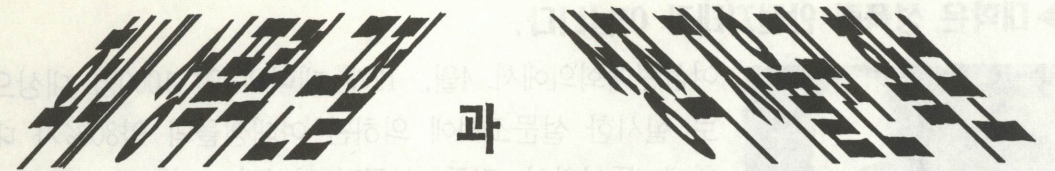


▶ 자치규약이나 학칙은 단순히 '가해자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녀가 평등한 자치적 학생사회를 형성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언급했듯이,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학칙이나 자치규약이 성폭력적 행동이나 발언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동이나 발언들을 단순히 탄압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되며 오히려 남성과 여성 사이의 일상적 관계맺기를 변화시키고 자발성에 기반하여 안전한 학생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사회의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사실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학에서 최소한이나마 자유가 주어지고 진보를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대학생으로서 우리들의 사회적 발언력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나의 주위와 나의 인간관계에서부터 작은 움직임들이 시작되어 사회로 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총여학생회에서는 직접행동주간 동안 "모든 성폭력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팹달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하나 하나의 작은 의지들을 모아 대학을 성폭력 해/방/공/간으로 만듭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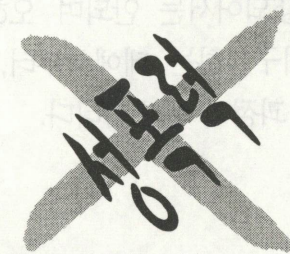
를 위한 **직접행동주간**을 선포합니다!!

9월 21일 - 9월 25일

대학을 성폭력 해/방/공/간으로!!

이제,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내 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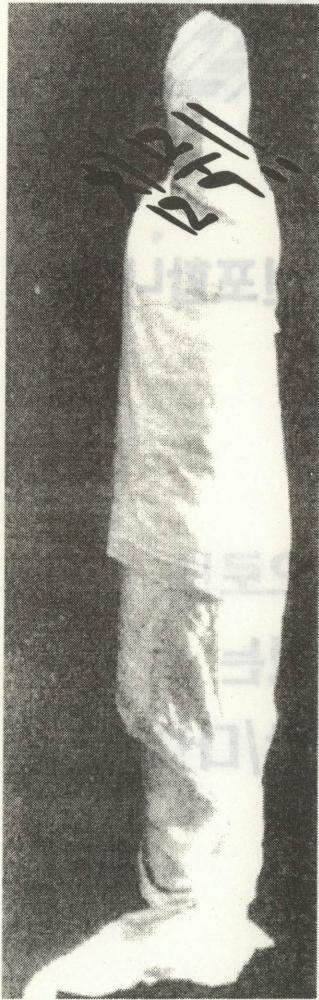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질서

여/성/주/의 제10대 총여학생회에서 드립니다.

성폭력 자치규약 제정운동을 제안합니다!!

▶대학은 성폭력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여성연대회의에서 4월, 12개 대학의 약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여대생들의 약80%가 대학에 들어와서 각종 성폭력(언어적, 시각적, 물리적 등)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가 새삼 놀랍기도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성폭력은 소수의 여성과 소수의 남성 사이에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이라기 보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는 아주 일상적인 일입니다. 어느 술취한 선배가 후배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일은 너무나도 흔한 '레파토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올해 초에는 어느 교수가 수업시간에 성폭력적 발언들을 몇 년 동안이나 일삼아왔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성폭력은 자신의 성욕을 통제하지 못하는 비도덕적인 남성과, 정숙하지 못한 여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 간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가 길들여져 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성폭력의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단순히 사회적으로 '매장'되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남녀 간의 폭력적 관계를 재구성하는 데에서부터,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치규약은

대학을 성폭력 해방 공간으로 만드는 데에 작은 발걸음입니다.

만약 성폭력이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대한 대응 또한 우리들의 일상과 주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치규약은 학회나 동아리 또는 학생회에서 그 조직의 구성원들의 합의 하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야말로 자치'규약'입니다. 술자리에서나 MT 때, 또는 평상시 여성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말들과 행동에 대해 여성들이 스스로 당당하게 발언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남성들도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치규약은 학우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지를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대학 사회의 문제를 직시하고 대처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을 바꿔나간다는 의미에서 자치운동으로서의 중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규약은 이후에 학칙 제정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자치규약 제정의 움직임은 다른 대학에서 활성화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에서도 몇몇 단대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학내 성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는 학생들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교수가 여학생들 대상으로 성폭력을 가하는 사례에 많이 접해왔으며 교직원 또한 성폭력에서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치규약은 우리들의 일상에서부터 문제제기이며 담론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면 학칙은 학교당국과 교육부의 인준을 받은 보다 넓은 범위에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자치규약은 학교 당국에 하나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며, 이후에 교수와 교직원까지 포함하는 학칙을 제정하도록 학교 당국에 강제해야 합니다.

▶학칙은 학교당국이 제정한 '일방적' 규율이어서는 안되며 학생들의 힘에 의해 만들어지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현재 연세대학교의 학칙에는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학생들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조항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학칙은 학교당국이 학생들을 감시하는 도구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은 그러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제정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은 '연세대학교만은 깨끗하다'라는 헛된 엘리트 의식 - 예를 들어, "XX학교에서 제정하니까 우리도 해야돼!" - 을 선전하기 위해 만들어지거나, 또는 성폭력을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려는 사고에 근원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몇몇 대학에서는 이미 학교당국의 제안으로 학칙 제정을 하려 합니다. 그러나 학칙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 오히려 학교 이름을 선전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폭력 학칙과 더불어 다른 모든 학칙이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학생들이 앞장서야 합니다.